

弘報室 : (02)  
6050-3602~5

이 자료는 12/27(金)자 朝刊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인터넷 등은 12/26(木) 11:00부터

문의 : 유통산업정책실 이영준 실장(6050-1510), 황미정 과장(6050-1514)

## 내년 1분기 유통업 체감경기 '호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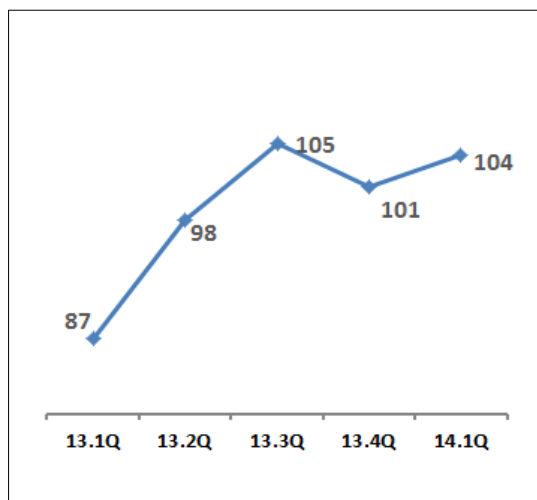
- 대한상의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조사 : 4Q '101' → 1Q '104'
- 대형마트(108), 2년 만에 기준치 상회하며 회복 기대감 높여
- 백화점(117), 홈쇼핑(106), 인터넷쇼핑몰(104) '호전' ... 편의점(86), 슈퍼마켓(83) '고전' 전망

내년 초에도 소매유통업의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최근 서울 및 6대 광역시 943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14년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1분기 전망치가 전분기보다 3포인트 상승한 104로 집계돼 3분기 연속 기준치인 100을 상회하는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26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최근 투자·소비심리지수 등 각종 경제지표들이 경기 회복의 신호를 보내는 데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분기 내 설 명절 특수가 겹치며 1분기 유통기업 매출이 다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림〉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추이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 Retail Business Survey Index)는 유통업체들이 체감하는 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이고 100미만이면 반대다.

업체별로는 전통적 유통 강자였던 백화점(117)과 대형마트(108)가 이전 분기 대비 각각 9포인트, 16포인트씩 증가하며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으며, 이어 홈쇼핑(106), 인터넷쇼핑몰(104)도 기준치를 상회하며 긍정적 전망을 보였다. 반면, 편의점(86)과 슈퍼마켓(83)은 기준치를 한참 밑도는 등 고전할 것으로 예상됐다.

〈표〉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FBSI) 추이

업체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백화점	116	116	120	121	134	129	109	105	96	107	109	102	95	109	113	108	117
대형마트	122	122	126	124	131	131	130	102	103	97	87	87	76	82	98	92	108
홈쇼핑	104	133	129	134	102	122	118	109	115	139	134	138	77	104	104	148	106
인터넷쇼핑몰	116	115	120	114	104	124	114	134	108	114	114	103	105	115	113	105	104
편의점	109	120	124	105	72	118	125	112	105	105	112	98	81	93	105	90	86
슈퍼마켓	120	115	116	106	95	114	111	96	91	97	103	96	83	94	97	106	83

백화점(117)은 동절기 의류 매출 증가와 각종 팝업스토어 설치 등의 다양한 마케팅 전략이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설 선물세트 판매에 대한 기대감까지 겹쳐 새해 특수를 가장 크게 누릴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108)는 작년 영업규제에 대한 기저효과와 함께 알뜰 소비심리 확산에 따른 설 선물 대형마트 구매 확산과 명절 기간 식료품 구매 증가에 대한 기대로 2년 만에 기준치를 넘어서며 회복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홈쇼핑(106)은 동절기 시청률 증가라는 계절적 특수와 디자이너 및 백화점 브랜드 런칭 등 패션 상품군을 지속적으로 강화한 영향으로 당분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인터넷쇼핑몰(104) 역시 알뜰 소비심리 지속에 따라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편의점(86)은 동절기 유동인구 감소를 비롯해 상권포화, 정부의 출점제한 권고, 드럭스토어와 같은 경쟁업체 확산 등의 복합적 원인으로 당분간 고전하며 업체 체질 개선을 위한 조정기를 가질 것으로 전망됐다.

슈퍼마켓(83)은 지난 분기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다시 23포인트 하락하며 영업규제 여파를 벗어날 강력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년 1분기 예상되는 경영애로 요인으로 유통업체들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매출부진'(33.7%)을 첫 손에 꼽았고 이어 '수익성 하락'(15.5%), '업체간 경쟁 심화'(14.9%), '업체내 경쟁심화'(9.7%), '유통관련 규제강화'(8.9%), '인력부족'(5.1%), '자금사정 악화'(4.9%) 등을 차례로 꼽았다. <‘상품가격 상승’4.0%, ‘기타’3.3%>

김경중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소비에 반영돼 새해 소매유통시장은 다소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인구 구조 변동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나 업체 융복합에 따른 경쟁 격화 등 국내 유통기업이 풀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은 만큼 기업 스스로 적극적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 조사 개요 >

- ☐ 조사기간 : 12/2(월)~12/20(금)
- ☐ 조사업체 : 대형마트, 백화점, 인터넷쇼핑몰, 슈퍼마켓, 편의점, 홈쇼핑 등 소매유통업체 943개사
- ☐ 조사지역 : 전국 7대 도시
- ☐ 조사방법 : 전화 또는 팩스